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과 일반유아 교육기관의 비교 -

전 은 옥(가톨릭대학교 석사) · 이 미 숙(가톨릭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과 일반유아 교육기관 별로 비교해보고, 교사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또한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해봄으로써, 장애유아 통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 30곳과 일반유아 교육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총 400명의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30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의 교사는 126명, 일반유아 교육기관의 교사는 174명이다. 교사의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김정현(1996)의 '통합에 대한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Mainstreaming Scale: ATMS)를 사용하였으며, 통합의 개념, 일반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노력 요구, 학업적 기대, 행동적 기대 등 5개의 하위요인과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사의 직무만족도 척도는 서은희(2002)를 참고하여 동료와의 관계, 원장과의 관계,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수승진 기회 등 5개의 하위요인과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t검증, 그리고 Pearson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 교사가 일반유아 교육기관의 교사보다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요인인 「일반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두 교육기관의 교사들 모두 일반교사에게는 특별한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장애유아 통합기관의 경우, 교사의 연령이 20대의 젊은 층일 때 통합교육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일반유아 교육기관의 경우, 교사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전문대졸 이하보다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다. 한편, 두 교육기관의 교사 모두 통합교육 연수경험이 있을 때 통합교육에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또한 통합교육기관의 경우, 특수교육 담당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통합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셋째,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의 경우 교사는 동료 및 원장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긍정적이다. 일반유아 교육기관의 경우, 교사는 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일반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해 특히 일반교사의 긍정적 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장애유아 교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교육 관련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경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고 특수교육의 담당경력을 증진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직접 관련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보다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